

해남군, 대흥사 권역 음식거리 활성화 ‘시동’

한식 양식 먹거리촌 음식 개발
통일된 찬기, 위생복 보급 등
‘미미원정대’ 유튜브 채널 홍보
19개 혼밥식당 1인식사 가능

해남군이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규시책으로 대흥사 권역 음식거리 활성화 사업에 나섰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대흥사 권역에는 총 28개의 일반음식점이 있으며, 해남

8마로 꼽히는 보리쌈밥, 산채비빔밥을 비롯해 자연 버섯탕, 돈가스 등 한식과 양식을 모두 맛볼 수 있는 먹거리촌이 형성돼 있다.

우선 대표 관광지인 대흥사권의 깨끗하고 위생적인 이미지 구축을 위해 통일된 찬기, 위생복과 위생모, 앞치마를 제작해 보급했다.

군의 먹거리 홍보를 위한 유튜브 채널인 ‘미미원정대’를 통해 음식점 홍보도 진행해 관광객들에게 대흥사의 특성화된

먹거리를 널리 알리고 있다.

대흥사권내 19개의 식당이 혼밥당당 식당으로 지정돼 1인 관광객들도 편히 방문해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해당 식당들에 대해 해충방제, 위생살균도 실시한다.

가을철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추석 명절 전까지 위생 개선 컨설팅을 추진해 주방, 조리장 등 위생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흥사권 음식점 업주들 또한 일회성

에 그치지 않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친절과 맛까지 더해 해남의 대표적인 미식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대흥사 권역 음식거리 활성화 사업을 통해 미식관광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미식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교육시설 경계 금연구역 확대
목포시, 구역내 흡연시 과태료

목포시는 교육시설 경계의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되며 기존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연구역 확대’는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이며 금연구역을 위반해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포시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교육 시설(246개소) 주출입구와 벽면 등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홍보용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현장 지도·점검과 시정소식지 등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목포시에서는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하반기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영암 삼호읍청소년문화의집

영암군 삼호읍청소년문화의집이 오는 28일까지 지역 청소년과 가족이 참여하는 하반기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하는 상반기 문화강좌로 지역사회 호응을 얻은 삼호읍청소년문화의집은 여름방학 기간 바리스타 직업체험, 베이킹 클래스, 친환경제품 만들기 등을 내용으로 ‘별거 다하는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해 각광을 받았다.

하반기 문화강좌는 9~12월에 실시되고 종이접기, 서예교실, 방송댄스, 음악줄넘기 4강좌가 운영된다.

이번 문화강좌 참가비와 재료비는 무료이며 영암군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전희자 영암군 가족행복과장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고구마 조직배양묘 분양
해남군, 30일까지 접수

해남군은 지역 고구마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조직배양묘 분양을 신청받겠다고 19일 밝혔다.

분양 품종은 국내육성 품종으로 소담미, 호풍미, 진ؤل미로,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신청받은 배양묘는 농가 여건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추기분,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춘기분으로 총 2회로 나눠 분양할 계획이다.

총 분양량은 약 16만주이며 관내 고구마 생산자 및 법인단체가 대상이다.

분양받은 생산자 및 단체에서는 육묘 하우스, 가온장치 등 적절한 육묘 조건을 갖추어 고구마순을 증식, 보급하게 된다.

고구마 조직배양묘는 일반묘에 비해 선택, 모양 등 우수해 품질 좋은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량도 약 25% 증가시킬 수 있다.

조직배양묘라 할지라도 계속 사용할 경우,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2~3년 주기로 갱신해야 지속적으로 고구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조직배양묘 분양을 통해 지리적 표시 농산물인 해남고구마의 품질개선과 수량 증대에 힘쓰고 국내 육성 품종 보급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신안군 관계자가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7일부터 카페 창업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 중이다.

신안군, 주민 커피 바리스타 양성 교육

신안군이 지난 7일부터 카페 창업을 희망하는 군민 대상으로 신안군농산물가공센터 교육장에서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과정을 운영 중이다.

19일 신안군에 따르면 교육은 20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총 8회로 커피의 이해, 에스프레소 추출, 라떼아트, 핸드드

립 등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인 바리스타 자격 과정과 달리 커피머신 사용법과 핸드드립 과정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프로그램 수준을 높였다.

바리스타 자격 과정은 올해에도 신청접수 시작 하루 만에 신청이 마감되는 등 평소 커피 바리스타에 관심이 많은 주민

의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25명의 바리스타를 양성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통하여 많은 카페가 개설되어 군을 찾는 관광객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며 “이번 교육이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강진군, 하맥축제 기간 음주 운전 특별 단속

강진군은 맥주를 주테마로 하는 ‘강진 하맥축제’를 무엇보다 음주 운전 없는 안전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들은 하맥축제 안전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안전문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서는 이번 축제가 술을 주제로 하는 축제인만큼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축제장인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음주단속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진군청 또한 축제 후 관광객들의 안

전한 귀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내놓았다. 음주 후 귀가가 어려운 관광객을 위해 종합운동장 풋살장 옆에서 무료 캠핑장을 운영하며 1박당 30팀, 축제 기간 3일간 90팀을 지난 16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다.

이밖에 강진터미널을 시작으로 강진군청을 경유해, 축제장으로 도착하는 45인승 무료셔틀버스 4대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상시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금호고속과의 협력을 통해 평상시 오후 8시40분이 막자인 광주시 버스를 축

제가 종료된 후에도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귀가할 수 있도록 오후 9시40분 시간대 버스를 추가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축제를 축제제로 관광객들이 대거 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외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하맥축제가 즐거운 축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예외없는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무안군,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예방 활동 강화

무안군은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위험이 커짐에 따라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감염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양에 서식하는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대표적 증상으로는 발열과 복통, 설사, 구토, 하지마비 등이 있다.

증상발현 후 24시간 이내 다리발진, 부종, 수포(출혈성) 등의 피부 병변이 나타나며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감염병이다.

무안군 보건소는 올해 여름 해수온도가 고온 지속됨에 따라 7월 관내 해수 및 갯벌 등에서 환경 검체를 채취하여 비브리오패혈증균의 분리 및 동정 검사를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했으며 비브리오패혈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병의원 등에 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 익혀 먹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기 △어패류는 5도 이하 저온 보관 △사용한 조리도구는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하기 등을 지켜야 한다.

무안=김행언 기자

무안군, 민방위 대피 훈련 실시
22일 오후 2시

무안군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민방위 대피훈련이 진행되며, 다중이용시설 대피훈련·공습대비 주민대피 훈련·차량 이동통제 훈련 등이 실시된다.

22일 오후 2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주민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대피하여, 라디오 방송(FM 105.9MHz)에서 나오는 국민행동요령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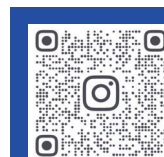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는 네이버지도·T맵 등에서 ‘민방위 대피소’를 검색하거나 안전디딤돌 앱에서 조회 후 찾으면 된다.

무안군의 차량 이동통제 훈련은 무안버스터미널에서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구간에서 실시된다. 공급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5분간 우측 차로에 차를 정지한 후 라디오 방송으로 나오는 국민행동요령을 청취해야 한다.

군은 롯데마트 남악점을 시범훈련 장소로 지정하여 군민들이 참여하는 대피훈련도 진행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주민 통제 등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민방위 대피훈련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전일보

@jnilbo
Kakao Talk : 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